이승엽 10타점…센트럴리그 1위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4번 타자 이승엽(30)이 시즌 100타점 목표를 향해 순항 중이다.

3월31일 개막 후 요코하마 베이스타스,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스, 주니치 드래곤스 등 3팀과 9경기를 치른 10일 현재 이승엽은 10타점으로 센트럴리그 타점 1위를 달리고 있다.

또 득점(14개·1위) 타율(0.364·10위), 홈런(3개·2위), 볼넷(7개·3위), 출루율(0.463·6위), 장타율(0.667·4위) 등 도루를 제외한 공격 전부문에서 상위권에 올라 전반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홈런 2위·타율 10위 등 공격부문 상위권 랭크

이승엽은 요미우리 유니폼을 입으면서 타율 0.280이상, 타점은 100개 이상, 홈런은 40개 이상을 선언했다. 비록 시즌 초반이나 현재 추세라면 앞으로 137경기를 모두 치른 후에는 훨씬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엽은 일본으로 떠나기 전인 2003년 삼성에서 131경기에 나서 144타점을 올리며 '꿈의 1경기 1타점'을 달성한 바 있다. 안타도 아니고 한 경기에 평균 타점 1개 이상을 올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임은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현대 야구에서는 1999년 메이저리그에서 매니 라미레스(당시 클리블랜드)가 162경기에서 165타점을 올린 게 최고다.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 '타점 기계'는 이 때부터 나왔다. 한편 이번 주 이승엽은 일본 통산 50홈런 돌파를 노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오늘 홈개막전…"첫승 인사"

두산전…그레이 싱어 선발 연예인야구단 초청경기도

"내년엔 기필코 광주에서 개막전을"

KIA 타이거즈는 프로야구 출범 25년째를 맞은 지난 8일, 광주가 아닌 대전에서 2006 정규시즌 개막전을 치렀다.

2005년 꼴찌팀인 KIA는 지난 시즌 1~4위를 차지한 구단의 홈구장에서 개막전이 열리는 규정에 따라 대전에서 첫 경기를 맞이한 것.

홈팬들도 없는 '적지' 에서 '야유성(?) 응원' 을 듣고 싸워야 했던 KIA 선수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KIA가 프로야구 출범 이후 25년동안 정규 시즌 개막전을 홈이 아닌 타 지역에서 치른 경우는 5차례에 불과하다.

2년 연속 타 구장에서 개막전을 치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KIA타이거즈가 11일 오후 6시 30분 2006 프로야구 두산과의 홈 개막전을 통해 올 시즌 홈팬들에게 첫 인사를 한다.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진행되는 홈 개막식은 KIA 선수단의 올 시즌 4강 진출에 대한 필승 의지를 담은 개막식 선언과 함께 화려한 폭죽 불꽃쇼로 시작된다.

개막식 시구는 탤런트 박신혜씨가 던질 예정이다.

개막식에 앞선 식전 행사로는 오후 4시부터 90분간 열리는 KIA 코칭 스태프와 연예인 야구단 '恨' 의 초청경기가 눈에 띈다.

'恨' 에는 주장 정준하를 비롯해 이휘재, 박준형, 김한석, 배칠수 등 인기 개그맨과 가수 이웅호, 탤런트 강용석, 이광기 등이 포진해 있다.

한편 이날 홈 개막전 5회 종료 후 KIA 타이거즈 이강철(40) 코치의 은퇴식이 열린다.

이 코치의 현역 시절 영상물이 상영되고 이어 격려 영상물, 호남대 학군단의 '예도', 금패 및 배번 19번이 새겨진 골든글러브, 이강철 조형물, 꽃다발 전달, 그라운드 작별인사, 이 코치의 사인볼 및 손수건 1만개 무료 증정 순서로 진행된다.

KIA는 그가 현역 시절 거둔 152승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152개의 비둘기 풍선과 애드벌룬을 광주구장 상공에 띄울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금주의 프로야구 호랑이 "곰 제물 상승기류 타겠다"

초반 2연패로 상승기류를 놓친 KIA 타이거즈가 광주 개막전을 통해 분위기 전환을 꾀한다.

KIA는 지난 8, 9일 한화전에서 마운드의 붕괴와 중심타선의 침묵으로 역전 2연패를 당하며 다소 부진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KIA는 이번주 약체로 평가되는 두산과 홈 3연전(11~13일), 현대와의 원정 3연전(14~16일)을 통해 팀 분위기를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11일 열리는 두산과 홈 개막전에는 지난 시즌 두산전 무패(2승)의 그레이 싱어가 마운드를 맡는다.

타선에서는 지난 2게임에서 8타수 5안타로 6할타를 휘두르고 있는 이재주와 올 시즌 첫 연타석 홈런을 뽑아낸 장성호가 책임진다.

여기에 주장 이종범도 한화전 부진을 털고 팀 분위기를 추스리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KIA의 첫 제물이 될 두산은 주포 김동주의 부상으로 타선의 짜임새가 현저히 떨어진다.

하지만 안경현이 올 시즌 2경기에서 6타수 1홈런 포함 3안타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나주환도 8타수 1홈런, 3안타로 맹타를 휘두르고 있어 요주의 대상 1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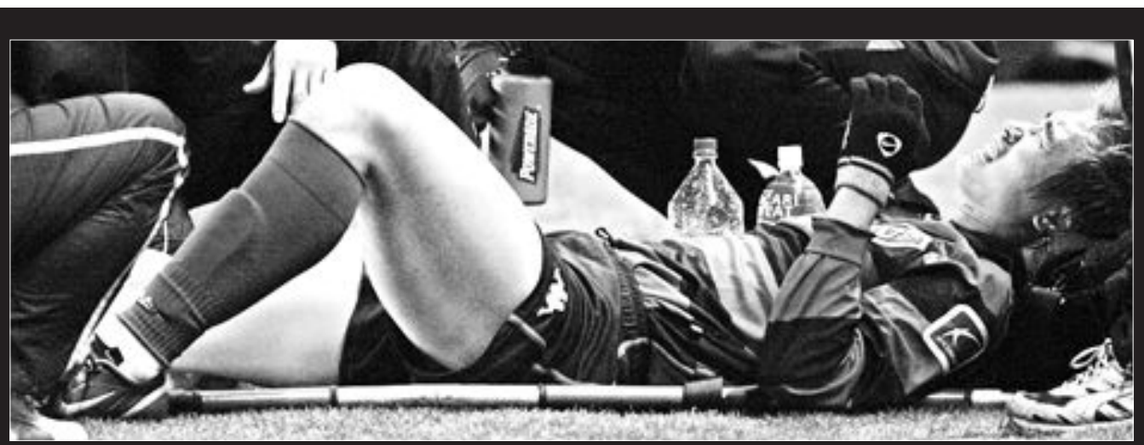
여기에 11일 선발 출전하는 이혜천에 이어 김명제,박명환, 랜들, 리오스 등 선발진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KIA 승수 쌓기의 관건이다.

올 시즌 2연패를 기록중인 현대는 두산에 비해 다소 쉬운 상대로 꼽힌다.

FA 이적으로 주요 선수가 빠진 가운데 올해 특별히 보강된 선수가 없다. 경험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인데다 뒷문도 정민태의 부상으로 불안하다.

전문가들은 KIA가 올 시즌 마운드나 타선에서 두산과 현대를 다소 앞서고 있어 홈 연승을 통해 팀분위기를 추스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KIA가 안방에서 '웅담'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후 약체 현대를 잡고 초반 상승세를 탈 수 있을 지 기대되는 한주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지난 5일 포항구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포항 스틸러스-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포항 이동국이 후반 40분께 부상으로 운동장 밖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

무릎부상 이동국 월드컵 출전 불투명

축구대표팀의 주전 골잡이 이동국(27·포항 스틸러스)의 부상이 무릎 십자인대 파열인 것으로 밝혀져 2006 독일 월드컵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대한축구협회 윤영설 의무분과위원장(연세대 의대 교수)은 10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동국에 대한 소견은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다. MRI(자기공명영상) 소견 상 우측 슬관절에 물이 약간 고여있고 미세 출혈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윤영설 위원장은 "경미한 수준이 아니다. 치료방법은 수술과 재활치료 두 가지인데 수술을 택하면 월드컵 출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재활 치료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일반인 같으면 재활 치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운동 선수는 이럴 경우 재부상에 대한 우려가 있고 제 기량을 100% 되찾기도 힘들어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월드컵만 아니라면 수술을 하겠다. 하지만 수술은 보름 정도의 급성기를 지나야 할 수 있고, 보조기를 차고 안정을 취하면서 6주 정도 이후부터나 재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국으로서는 월드컵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딕 아드보카트 대표팀 감독을 만나 이런 내용을 보고했고 아드보카트 감독은 '5월11일 엔트리 발표 직전에 상태를 살펴보자'는 의견을 냈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외국과 국내 의료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이동국이 재활 치료에만 집중하는 게 필요해 당분간 안정을 취하면서 가장 적합한 재활 기관을 결정할 계획이다.

찬호-선우 맞대결

朴 3이닝 6안타 2실점 金 1⅓이닝 2안타 1실점

선발 복귀를 노리는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김선우(29·콜로라도 로키스)가 올 시즌 첫 맞대결을 벌였으나 둘다 아쉬움을 남겼다.

박찬호는 10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 3-7로 뒤진 5회초 무사 3루에서 선발투수 제이크 피비를 구원 등판, 3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솎아냈지만 홈런 1개 등 6안타로 2실점했다. 시즌 방어율은 3.86.

하지만 김선우는 첫 타자 비니 카스티야에게 좌전 안타를 맞은 뒤 조시 바필드를 중견수 플라이로 잡았으나 대타 마크 벨혼에게 2루타를 허용했다.

결국 1사 2, 3루에서 레이 킹에게 마운드를 넘긴 김선우는 3루 주자 카스티야가 에릭 영의 땅볼 때 홈을 밟아 ⅓이닝 동안 2안타 1실점이 기록됐다.

벨혼과 교체된 박찬호는 김선우와 투·타 대결은 무산됐고 이날 경기는 홈런 3개 등 장단 18안타를 몰아친 콜로라도가 10-4로 이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히딩크 정규리그 우승

거스 히딩크(59) PSV 에인트호벤 감독이 팀의 통산 19번째 네덜란드 프로축구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에인트호벤은 지난 9일(이하 한국시간) FC 그로닝겐과 1-1로 비겨 승점 1을 보태 올 시즌 25승5무2패(승점80)를 기록했다.

스포츠중계

11일(화)

▲메이저리그〈필라델피아-애틀란타〉(08 : 05·Xports), 〈텍사스-LA 에인젤스〉(10 : 55·Xports)

▲제3회 국민생활체육 전국장사씨름대회(14 : 00·MBC ESPN)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히로시마〉(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롯데-SK〉(18 : 30·MBC ESPN), 〈삼성-현대〉(18 : 15·KBS SKY SPORTS)

▲플레이오프 준결승 3차전〈KCC-모비스〉(19 : 00·Xports)